인천상공회의소 의원과 직원들(1937)

證收領金義償報債國

1907년 4월 4일 대한매일신보 발급 국채보상금 영수증.
강화군 화도면 장곶동 주민들이 64원을 모아냈다는 내용이다.

100년 전
그 '실천'
바로
'인천정신'입니다

일제에 맞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가장 먼저 실행한 곳은 인천입니다.

민족 자본가로 구성된 인천항신상회사(현재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을 중심으로 단연(斷煙)동맹회를 결성해 전국에서 최초로 의연금 모금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지역 여성들은 쌀 절약과 패물 모으기 운동을 펼쳤으며, 주민들은 땔감과 짚신을 팔아 의연금을 마련했습니다.

선조들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인천 '재정건전화'를 앞당기고
'인천주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니다.

인천광역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6 | 10

인천광역시

굿모닝 인천

10
OCTOBER
2016

인천 하늘에 드론이 떴다. 우리시는 '항공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세워 드론 산업 지원 체계를 새로 구축. 2020년까지 인천을 '항공 혁신 도시' 로 만든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를 비행하는 순수 한국산 드론 'LOBIT 300GT'

– '인천 가치 재창조' 시리즈
그 열 번째,
항공 혁신 도시 인천

인천아리랑

노래 **정은희** 작사작곡 **김수곤**

바다는 열려있고 하늘은 높고 넓어
세계는 인천으로 구름같이 몰려온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같이 사랑의(희망의) 노래 불러요
송도에서 월미도에서 유람선 타고
아라뱃길 노을 지는 정서진까지

아리랑 아리랑 미추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인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인천

2013년 정은희의 「인천아리랑」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아리랑의 서정적, 애환, 한의 정서를 벗어나 인천의 희망과 비전이 담긴 가사에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멜로디가 인천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듯하다.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지회의 정은희 원장은 민요 전문가로서 인천에 인천아리랑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석모도에 노을지면' 등을 부른 가수 겸 작곡가인 김수곤씨와 함께 흥겨운 리듬감의 '인천 아리랑'을 만들었다.

※'인천 가치 재창조'는 삶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굿모닝인천」은 올해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인천의 노래'를 연재합니다.

CONTENTS

2016 OCTOBER I VOL.274
INCHEON MONTHLY MAGAZINE

06

10

16

06 **드론, 날다** ① 하늘 아래 인천
10 ② 드론 메카 인천
14 ③ 드론 아지트
16 **현실로 다가온 미래도시** 송도국제도시
22 **우리는 인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사람들
28 **인천주권 시대** ② 해양 주권
30 **경기장 변신**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4 **시립박물관** 전시회 뒷이야기
38 **10월의 문화 행사**
40 **10월 축제** 애인 페스티벌
42 **학교 앨범을 통해 본 인천 이야기** 송도고 편
48 NEWS BRIEF
52 COUNCIL NEWS
54 INFO BOX
57 BOOK
58 **모닝 커피 한잔** 고현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홍보서포터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 바로북** 등에서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 문의** 인천광역시 브랜드담당관실 032-440-8306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6년 10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박혜란(브랜드담당관)
편집장 유동현(홍보콘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정경숙,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성환·류창현·김상덕·홍승훈·최준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타라티.피.에스

인천통통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인천이 궁금하다면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두루미·장미·목백합

인천 시조(市鳥)
두루미

인천 시화(市花)
장미

인천 시목(市木)
목백합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 홍보콘텐츠 블로그 **'인천 에피소드&해피소드'**
(blog.naver.com/happylong7)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flyic)
블로그(blog.incheon.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incheon.city)
웨이보(www.weibo.com/incheon)

작은 소리도 **크게** 듣습니다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에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시민의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시 확대간부회의를 시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천시 시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 확대간부회의를 시청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청(www.incheon.go.kr) 홈페이지 → ON通인천(온통 인천) → 통하는 인천 → 주요 회의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74-3374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여행객이 여행 왔다가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국산이라고 하여 농산물을 구입했는데,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구입처에 가서 원산지표시제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정확한 분석을 원하면 사비로 실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신고와 분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821-6060)에서 하시면 됩니다.

송도에서 월미도, 개항장으로 가는 시티투어버스의 운영 시간 및 티켓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행 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이며 첫차는 오전 9시, 막차는 오후 5시(출발지 : 송도센트럴파크, 인천역)입니다. 티켓은 인천역관광안내소 매표소나 송도센트럴파크 정류장에서 구입(현금·신용카드 가능)할 수 있으며, 각 정류장에서 탑승 시 승무원에게도 구입(신용카드만 가능)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는 사용 불가합니다. 문의처 772-4000.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에너지 넘치는 부평이 좋아

심유순 독자님은 인천 토박이입니다. 부평 청천동에서 태어나 결혼 후 단란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지금도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부평은 부평문화의 거리를 비롯해 곳곳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에너지 넘치는 동네예요. 또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살기 좋답니다".
독자님은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이 생기고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부평 뿐 아니라 인천 전역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바다, 섬, 구도심, 신도시 등 인천의 명소 곳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정작 내가 사는 인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굿모닝인천>과 인천시 SNS를 통해 인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동네 도서관과 맛집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독자님은 생각보다 인천은 큰 도시라며, 주변에서 인천에 갈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굿모닝인천>이 인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내 고향 인천 파이팅! 앞으로 미래가 기대돼요. 언제나 한마음으로 응원할게요."

※ 인천시는 '인천 어린이 행복 더하기 업무 협약'을 체결, '뽀로로' '타요버스' '코코몽' 등 캐릭터를 활용해 시정 홍보 및 공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자 **심유순(44·부평구 십정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5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66

숫자로 보는 인천

말갛게 닦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 양복점 안에는 항상 멋진 양복을 입은 마네킹이 서 있었다. 마네킹에겐 가장 최근에 만든 양복이 매번 바뀌어 입혀졌고, 새 양복이 걸릴 때마다 사람들은 창밖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곤 했다.
맞춤 양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1960년대 대도시는 물론, 지방 읍내까지도 양복점이 속속 들어섰다.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입학 선물로 양복을 맞춰주는 풍경이 흔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기성복이 대중화되면서 양복점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양복점 주인들은 벌이가 시원찮아지자 더러는 세탁소로 더러는 수선집으로 업종을 바꿨다.
양복점의 수는 얼마나 줄었을까? 2014년 말 현재 개인양복점은 66곳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의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 '남성용 정장 제조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체가 1993년 431곳, 1997년 247곳, 2001년 132곳, 2005년 904곳, 2009년 788곳, 2014년 66곳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양복점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의 눈물과 우정, 성공 그리고 사랑을 그린 주말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양복점이 재평가 받고 있다. 또 개인의 개성과 체형을 고려한 '나를 위한' 맞춤 양복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대딛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양복을 지어주며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의미의 성년식이 이뤄졌던 장소, 양복점. 이번 가을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로 '양복'을 맞춰드리면 어떨까?

드론으로 본 인천

하늘에서 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거창하게 헬기나 비행기를 띄울 필요가 없다. 드론(Drone, 무인비행기)이 있기에, 이제, 드론으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하늘로 출사를 갈 수 있게 됐다. 살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 그 안에 숨겨진 빛나는 이야기를 드론의 눈을 통해 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ea 중구 북성포구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바다

그곳에 바다가 있으리라, 인천 사람이라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역 뒤편에 숨어 있는 북성포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가까이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함께 만선의 기쁨으로 출렁거렸다. 나이든 포구는 쇠락했지만, 그 생명력은 여전하다. 바다에서 은빛 희망을 낚고 한잔 술에 시름을 달래며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변함없이 이 안에 머문다. 바다 건너편 거대한 공장지대는 쉴 새 없이 연기를 내뿜고 하늘 높이 원목을 쌓아올린다. 포구는 아직, 살아 있다.

Old & New 동구 화도진 일대

과거와 오늘, 높고 낮음의 공존

인천은 깊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 우리나라 개화기를 열고 근대화를 이끌어 온 역사가 묵묵히 흐른다. 화도진은 구한말 인천 앞바다 해안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인근지역이 매립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1988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화도진도'를 토대로 복원됐다. 이 일대에는 과거와 오늘의 시간이 함께 흐른다. 옛 건축물을 사이에 두고 높다란 아파트와 나지막한 옛 동네가 공존하는 풍경이 정겹다.

New City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하늘과 맞닿은, 미래도시의 스카이라인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에 대한 새로운 각인이다. 이 새롭고 번쩍번쩍한 도시는, 회색빛 공장지대를 품은 주변 도시에 머물렀던 인천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어버렸다. 분주함이 넘치는 첨단도시 한가운데는 초록으로 빛나는 송도센트럴파크가 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수로를 따라가면, 최첨단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이 어우러진 인천을 만난다. 하늘에 닿을 듯 솟은 동북아무역타워, 지구에 착륙한 UFO 같은 트라이볼 등 아름답고 이국적인 건축물이 시선을 잡아챈다.

Road 부평 굴포천

메마른 도심
촉촉이 적시는 물길

너른 들판 한가운데를 흐르며 땅을 기름지게 하는 부평의 젖줄. 굴포천의 발원지는 인천가족공원이 있는 금마산 기슭 칠성약수터다. 이곳에서부터 흐른 물은 부평 시내와 삼산타운을 지나 동으로 굽이 친 뒤 계속 내달리다 김포를 거쳐 한강으로 이어진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삼산지구를 가로지르는 굴포천은 메마른 도심을 촉촉이 적시는 소중한 물줄기다. 한편 이달 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인천 '드론 메카'로 뜬다

'드론'이면 만사 OK

바다 지키고,
교량 점검하고,
농사까지

드론이 인천 하늘을 점령한다. 우리 시는 드론을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인천을 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시는 '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2020년까지 인천을 '항공 혁신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송도산업기술단지 내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공모 사업에 지원한다. 오는 2019년에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인천로봇랜드에 '드론복합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행정 업무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동연구하고 신기술을 접목시켜 인천가치 재창조에 일조하리라 기대된다. 시는 지난여름 세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해상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지난 9월 드론으로 대형 교량인 초지대교와 백석대교의 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기술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시연했다.

※ 이 기사는 인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라, 드론 운영기술에 협력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공활한 가을 하늘, 드론을 날리자!

설마 UFO? 번쩍이는 비행 물체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점령했다. 수평으로 내달리다가도 우아한 몸짓으로 수직 비상하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드론. 최근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 곳곳이 드론 명소로 떠오르면서, 하늘의 풍경이 바뀌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드론 동호회 '드론 플레이'

드론, 군인에서 키덜트의 손으로

'윙윙~' 드론이 하늘을 운동장 삼아 신나게 달리기를 한다. 파란 하늘 탐스러운 구름 사이로 높이 솟아올라 날다 사뿐히 착륙하는 비행 물체. 보는 사람도 하늘을 나는 듯 자유롭고 짜릿하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의 어느 좋은 날, 송도달빛축제공원. 3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드론 동호회 '드론 플레이(Dronplay)'의 인천 지역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부터 중년 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기종도 한 손에 잡히는 완구부터 천만 원대 전문가용까지 다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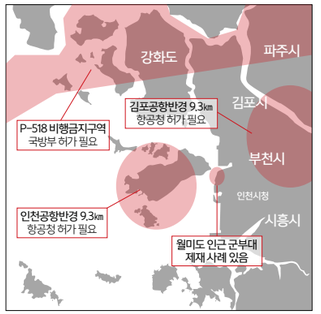
드론은 무선전파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드론(Drone)'이라는 단어는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라는 뜻에서 왔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으로 처음 제작됐다. 비행 성능이 좋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배송과 촬영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확대됐다. 이후 비행하며 노는, 최첨단 취미 드론의 세계가 열렸다.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드론을 조정하면 직접 하늘을 나는 듯한 희열을 느껴요. 내가 가보지 못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동호회 초창기 멤버이자, 드론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전문매장까지 연 심의진(52) 씨가 드론의 매력을 말한다.

'드론 성지' 찾아 인천으로

'포켓몬 고'가 속초라면 '드론'은 인천이다! 인천이 전국 드론 마니아들이 찾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드론이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약이 많다. 현행법상 아무 데서나 드론을 띄울 수 없고, 150미터 미만의 높이에서만 날릴 수

"꼭 확인하세요!" 인천 내 드론 비행 가능 구역

남구, 남동구, 동구, 연수구 및 그외 지역 일부(계양구 전체 비행불가, P-518 또는 공항 주변 반경 9.3㎞ 이내 해당 지역 비행 불가



※ 인천 내 비행 가능 구역은 스마트폰 앱(Ready to fly) 또는 브이월드 웹사이트(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법규를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웹사이트(www.molit.go.kr)를 참고한다.

“자유롭게 훨훨 드론을 날리세요~”
인천 드론 명소

인근 도시에서도 원정 오는, 인천에서 드론 날리기 좋은 명소를 소개한다. 비행 가능 구역으로 드론을 마음껏 날리기 좋고, 촬영 시 경관이 좋은 곳 위주로 뽑았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인적이 드물고, 잔디밭이 드넓다. 그러나 촬영 시 보이는 풍경은 가까이 있는 센트럴파크에 비해 제한적이다.

청라호수공원 인적이 드물고 넓은 평지가 있어, 초보자도 비행연습하기 좋다.

월미도 평일에는 사람이 적고 촬영 시 경관이 좋다. 단 바다가 있으므로 초보자는 금물.

문학경기장 새싹야구장 규모는 작지만 잔디밭이 있어서 안전하다. 야구 연습 시간을 피해야 하는 건 기본.

청라국제도시 역 1번 출구 앞 공터 인적이 드물어 초보자가 비행연습하기 좋다.

있다. 야간 운행도 안 된다. 서울의 경우 비행 금지구역과 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 드론을 날리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하지만 인천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고도 제한 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 거리상의 이점으로, 드론 애호가들의 원정이 이어지고 있다.

드론 유저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명소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드론을 날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사람과 건물, 고압선이 없는 넓은 잔디밭입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거리적으로 가깝고 한적한 공원이 많아 드론을 날리기에 제격입니다.” 드론 플레이 운영자 신경승(42) 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은 드론을 날리기 좋은 이른바 ‘드플 성지’를 발굴하고 있다. 이들이 찾은 ‘대한민국 성지 1호’는 원래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잔디밭이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와 더 이상 경기장 하늘 위를 누빌 수 없게 됐다.

드론, 그 무한한 가능성

드론 애호가들이 모이자, 드론을 만드는 기업도 모여들었다. 최근 2년 사이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드론 관련 업체 10여 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항공산업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고 드론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천은 드론 산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드로젠’은 레이싱 드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다. 스포츠 드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레이싱 대회 ‘D1그랑프리’를 개최하고 있다. 제2회 D1그랑프리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드로젠은 순수 한국 기술로 세계와 어깨를 당당히 겨룬다. “드론 산업의 제반 기술이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틀을 깨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드론은 마지막 남은 항공 산업의 영역입니다. 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이홍신(47) 대표는 향후 항공 촬영과 산업용 드론 등을 개발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드로젠’ 사람들. 이준택 이사, 이중근 연구원, 신요한 사원

전국에서 원정 오는 드론 명소 ‘송도달빛축제공원’

드론의 매력은 무한한 응용성에 있다. 물건을 나르고 촬영하는 일은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드론을 미래의 유망한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항공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드론 산업 지원 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그리하여 2020년까지 인천을 ‘항공 혁신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드론을 일상에 접목하는 창의적인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사람이 아닌 드론이 해수욕장 상공을 날며 순찰하고, 강화 초지대교와 서구 백석교 등 대형 교량의 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또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열고 드론의 저변을 확대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신도시에서는 드론을 연구 개발하고 원도심 산업단지에서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는, 드론 비즈니스의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물류 운송, 탐사, 관측, 재난 감시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은 그 활용 영역의 끝이 없는 매력적인 미래 산업이다. 인천 하늘에서 반짝이는 비행 물체를 보고 또 본다 해도 그리 놀라지 않을 날이 멀지 않다.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드론의 세계에 입문한 당신은 이제 ‘드론 조종사’. 기체와 주변 사람의 안전이 당신의 두 손에 달렸다. 드론을 조정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사항.

1 비행 중에는 장치를 육안으로 항상 확인한다.
2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는 비행 금지(스포츠 경기장, 페스티벌 등)
3 150m 이상 날리지 말기
4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5 야간 비행은 불법(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6 음주 상태에서 조정 금지
7 비행 중 낙하물 투척 금지

송도국제도시 내 드론 업체 ‘드로젠’

우리 동네 체육관, 카페에 드론이 떴다

드론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빠는 드론으로 하늘로 출사를 가고, 아이는 하늘을 운동장 삼아 레이싱을 한다. 굳이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명소도 속속 생겨났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김상덕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내 테스트 공간

커피 한 잔하며 우아하게 비행

드론 카페 '드로젠'

커피 한잔 가볍게 곁들이며 최첨단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카페 드로젠'은 지난 7월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드론 카페. 드론 제조업체 '드로젠'이 직접 운영한다. 카페에 들어서면 최첨단 드론 전시품과 드론의 비행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특히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든 '드로젠 로빗(LOBIT) 시리즈'를 만날 수 있어 반갑다. "드로젠이 개발한 토이드론은 전 세계와 겨루는 기술력을 갖추었습니다. 꼭 한 번 날려보세요." 이흥신(47) 대표는 일반인도 드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페를 오픈했다. 내년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30여 곳에 추가로 열 계획이다. 여기선 초보자도 두려움 없이 드론에 다가설 수 있다. 드론을 직접 보고 만지고 비행과 수리 등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테스트 공간에서 드론을 직접 날려볼 수도 있다.

체크 포인트 한국 기술로 제작한 드론을 만날 수 있다. 커피 맛도 최고다. 최고급 원두를 사용해 전자 사이폰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와 유기농 수제 쿠키는 이집의 자랑.
문의 카페 드로젠 811-8654, lobit.co.kr
위치 연수구 송도과학로 27번길 55 에비뉴상가 C201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1시

'드로젠' 이흥신 대표

원도심 속 최첨단 아지트

드론 전문매장 '지니드론'

드론에 관심이 있다면, '지니드론'에 가보자. 나올 땐 한 손에 드론을 들고 초보 조종사가 되어 문을 나설 수 있다. 이곳은 드론 전문 판매장을 넘어 유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아지트 역할을 한다. 심의진(52) 대표는 드론이 좋아서 16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1월 가게 문을 열었다. "드론 동호회의 부운영자로 있으면서 회원들이 드론을 날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니드론에 가면 드론 체험부터 구매, 교육, 수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가게 한편에는 요즘 대세인 촬영용 드론 '팬텀'과 '인스파이어' 시리즈가 화려한 자태로 마음을 홀린다. "돈을 버는 것보다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많아야 사업도 발전한다는 것이 심 씨의 생각이다. 그래서 비행 방법부터 제품 수리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적인 것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 준다. 이름 그대로 '램프요정 지니'처럼 드론에 대해선 어떤 바람이든 척척 이뤄준다.

체크 포인트 인천 최초 드론 전문 매장이자 드론 유저들의 아지트, 드론 체험부터 구매·교육·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문의 지니드론 010-9154-3858, www.jinidrone.co.kr
위치 동구 송림로 113 송영 빌딩 2층
영업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OK!

드론 실내 스타디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서든 드론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비행장이 생겨났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남동체육관에 국내 최초로 드론 실내 스타디움을 열었다. 드론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야외에서 날리는 데는 아직 제약이 많다. 공중을 나는 물건인 만큼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일이 비행 허가 구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내 스타디움에서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시는 한국드론협회,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손잡고 드론 아카데미를 매월 세 차례 운영한다. 드론 기초 교육부터 비행 실습을 진행하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체크 포인트 드론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면 매월 개강 2주 전에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블로그(blog.naver.com/incheoncomc)를 통해 신청한다. 한편 인천미디어센터는 센터 내에서 드론 촬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4074,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722-7914
위치 남동구 수산동 인천 남동체육관
운영시간 월 3회.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비정상회담에서 말한 바로 그 '송도'

지난 8월 29일 방송된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송도'에 대한 찬양이 쏟아졌다. 각 나라의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멕시코 대표로 참석한 크리스티안이 한국의 송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뒤이어 다른 나라 대표들도 송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미국 대표인 마크는 '미래도시 송도'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언급했다. 미래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송도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외국에서 송도는 정말 유명해요~"

외국인들이 꼽은 한국의 살고 싶은 도시는 송도였다. 8월 29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에서 각 나라의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회담 멤버들이 한국의 미래 도시로 송도를 언급한 것이다.

진행자 | 자, 또 살고 싶은 도시(있어요)?

멕시코 대표 크리스티안 | 저 있어요~ 한국 송도!

다른 나라 대표들 | 송도 예뻐요. 지하철로도 갈 수 있어요.

멕시코 대표 크리스티안 | 사실은 (송도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엄청 우아하고 비싸고 건물도 높고, 무척 현대적이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국 대표 마크 | 송도는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5년 전에 (송도) 아직 만드는 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 (어머니가) "마크, 신문에서 봤는데, 미래의 도시가 한국에 생겼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어본 적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 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었대요.

※실제로 뉴욕타임스에 송도가 한국의 최첨단 도시로 소개됐다.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 | 송도에 도시계획에 대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 정말 가볼 만해요.

U-City 운영센터. 송도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물론, 사물인터넷(IoT)의 각종 센서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한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폴. 도시미관을 고려해 상단을 튤립모양으로 디자인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유유히 움직이는 유람선, 널찍한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 이국적인 건축물로 이뤄낸 스카이라인,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송도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송도의 진가는 도시 구축단계부터 적용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는 편리하고 똑똑한 도시 만들기에 한창인데, 그 중심 모델로 '미래도시 송도'의 U-City(유비쿼터스 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U-City, 송도

세계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 환경과 안전,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형 도시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U-City와 스마트시티(지능형 도시) 등의 구축사업이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을 활용해 U-City라는 독자적 용어를 만들어 브랜드화했다.

지난 7월 13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의 글로벌 콘퍼런스 '시스코라이브 2016'에서는 미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시스코는 미국 시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더불어 한국의 송도를 가장 선진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 언급했다.

브렌다 저먼슨 시스코 매니저는 "스마트시티의 현재까지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의 송도에 가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도의 시스코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는 지난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약 3년간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공장), 스마트 홈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현재 송도는 기존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IT를 도시 개발의 전 과정에 적용했다. 송도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는 U-City 모델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

'센트럴파크 공원을 산책중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간다.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해 남자는 흉기를 꺼내들고 가방을 빼앗는다. 그 순간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감지한 U-City 운영센터의 모니터 요원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다. 도시 전체에 촘촘하게 구축된 CCTV의 그물 감시를 통해 결국 범인은 검거되고 만다.'

이 상황은 현재 송도의 U-City 운영센터를 통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

송도 G타워에 위치한 U-City 운영센터의 상황실 전면에는 365일 24시간 풀가동되는 DLP 큐브(스크린 일체형 영상출력기)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 전체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U-City 운영센터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IoT(사물인터넷)의 각종 센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한다. 때문에 단순히 실제상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이상 징후, 범죄, 재해, 사고 등 각종 위험요소를 신속·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문제가 감지되면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고층건물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방재 CCTV가 불꽃을 감지하면 상황실의 알람이 울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초동대처가 이뤄진다. 교통 CCTV로는 차량 경로 추적이 가능해 경찰의 수배차량 추적업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시민이 방범 CCTV 지주대

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상황실과 연결돼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교통상황, 재난·안전, 기상정보, 시정홍보 등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송도·청라·영종 통합으로 운영하는 U-City

U-City 운영센터는 앞으로 송도뿐 아니라, 청라와 영종의 U-City 사업까지 통합 운영하게 된다. 송도와 청라, 영종 등 서로 20㎞ 이상 떨어진 세 개 지구를 한데 묶어 U-City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U-City의 모든 유지 관리 업무를 'U-City 운영센터'에서 관장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같은 운영 센터 및 시스템의 통합으로 약 120억 원의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및 시스템 운영비 절감으로 연간 42억 원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정보 도시 인프라 구축 결과물을 자랑하면서도 U-City와 스마트시티 등의 가장 큰 관건인 구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에서 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U-City 운영센터에는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한 세계 각국과 기업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U-City과 윤미경 주무관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한다"며, "올해 7월 말 현재 방문객 2천 212명이 다녀갔는데, 그중 80%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총 2천 300여 명이 U-City 운영센터를 방문해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U-City 구축 노하우와 세부 기술력에 대한 브랜드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돌발상황관리 CCTV

방범 CCTV 지주대에 설치된 비상벨. 유사시 벨을 누르면 운영센터 요원과 바로 연결된다.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송도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가 인식되어 사건·사고 발생시 차량의 경로추적이 가능하다.

U-City 운영센터의 U-Service

U-교통

첨단 IT를 활용하여 지능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버스정보센터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실시간 신호제어, 교통정보 연계, 돌발상황 관리, 대중교통정보 제공

U-방범·방재

도시 내 주요지역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을 예방하고 경찰, 소방서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생활을 구현하는 서비스

- 방범CCTV, 차량번호 인식, 화재 감시

U-환경

보건환경연구원, 기상청, 기반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기정보, 수질정보, 환경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환경VMS, 환경포털

U-시설물 관리

U-City 현장설치 시설물의 상태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

- 2D, 3D, GIS 기반의 시설물 관리

도시민 정보제공

거주민 및 외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문화·교통·행정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도시민정보제공 포털, 교통·환경정보, 미디어보드, 앱 서비스

U-인프라

지능화된 현장시설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고품질의 자가통신망을 이용하여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 무선인터넷서비스, 광통신 네트워크

수많은 사연 머무는, 육지와 섬의 정거장

세상 어디에도 인천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세계의 하늘 아래 긴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땅, 가깝고도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168개의 섬. 하지만 무엇보다 인천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안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만나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고 내일을 그려 봅니다. 이번 호에는 육지에서 섬으로, 섬에서 육지로, 우리네 수많은 사연이 스치듯 머물다 가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류창현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백령도로 가는 쾌속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월요일인데도 터미널 안은 활기가 넘친다. 육지에서 주말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섬 주민들과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들로 북적북적하다. 이윽고 스피커에서 승선을 안내하는 방송이 울려 퍼지고 승객들이 개찰구 앞으로 길게 줄을 선다. 사이사이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는 이들도 있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허둥대며 달려오는 사람도 보인다.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환하다. 뱃길로 224㎞를 달려야 다다르는 서해의 종착역. 드디어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마다의 사연을 실은 배가 푸른 물결을 가로지르며 나아간다.

1990년 월미도 유람선이
처음 출항하던 해
인천 바다와 인연을 맺은,
고려고속훼리의 임석구 이사

일상에서 바다 건너, 섬으로

우리에게는 연안부두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땅 끝이자 바다의 시작점인 이곳에 서면 누구나 여행자처럼 가슴이 설렌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서쪽 바다 가까운 섬부터 멀리 서해 5도까지 닿을 수 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연안부두에서 인천 앞바다를 건너 섬으로 가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객터미널 내 선사 4곳 가운데 하나인 고려고속훼리의 임석구(51) 이사가 당시 일을 떠올린다. "휴가철이면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200, 300미터씩 길게 줄을 서곤 했어요. 터미널 안에 텐트를 치고 기다릴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지금은 인천항에서 가는 항로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이작도 네 항로뿐이지만, 당시는 영종도, 영흥도, 무의도까지 인천 전 항로로 배가 다녔어요."

인천 앞바다는 지금도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늘 깨어 있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는 승객은 연 106만 명에 이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삶과 꿈을 실은 배가 닻을 올리고 미지의 세계로 항해한다.

버스 타듯 배를 타는 사람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여행자에겐 두근두근 설렘을 안기지만, 섬사람들에겐 육지인들의 버스터미널처럼 일상생활 속의 정거장 역할을 한다. "병원에서 약 지어다 먹어야 해서, 두세 달에 한 번은 배타고 왔다 갔다 해. 벌써 7, 8년 됐어." 덕적도에 사는 김종심(86) 할머니는 신장이 좋지 않아 육지에 있는 종합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닌다. 앓고 있는 병 때문에 불편하긴 해도, 섬을 떠날 생각은 없다. "문갑도에서 태어났어. 스물한 살에 덕적도로 시집와서 인천서 나와 살다가 다시 섬으로 들어간 지 20여 년 됐지. 우리 남편은 여든아홉이야. 그저 두 늙은이 의지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야." 오후 2시 30분, 번쩍이는 전광판 불빛이 덕적도행 배의 출항 시간을 알린다. 시곗바늘은 아직 12시를 가리키는 데, 할머니는 벌써 텅 빈 대합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섬과 육지 사이를 자주 오가다 보니, 연안여객터미널의 배를 '우리 배'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다. "예전에는 '나 좀 늦으니, 배 좀 잡아 달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섬 주민들도 있었어요. 몇 분 정도 늦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기다리기도 했지요." 임 이사가 옛 기억을 떠올린다. 쾌속선이 다니기 전, 뭍에서 서해 끄트머리에 있는 백령도까지 가려면 꼬박 열두 시간을 내달려야 했다. 배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엔 이틀 밤낮을 기다려야 하니 서로 눈감아 주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섬에 가려면 10분 전에는 꼭 배에 타야 해요. 승선 표에 개인 정보도 기록해야 하고, 신분증도 표를 살 때와 배에 탈 때 두 번 확인합니다. 승선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어요."

'안전', '완전'하게 지킨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객의 '안전'이다. 전 국민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 선박안전기술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운항관리센터 정한구 센터장(왼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만난 덕적도 이웃사촌. 김종심 할머니와 김영희 씨, 그의 딸(오른쪽)

공단 인천지부 운항관리센터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오가는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한구(51) 센터장은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게 '안전'을 지킨다.

"매일매일 일기도를 분석하고 출항지의 기상을 확인한 후 출항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출항하기 전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배가 항구를 떠난 후에도 선박과 실시간으로 교신하면서 안전운항을 점검합니다. 사명감과 긍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요." 운항관리센터 사람들은 배가 뜨고 도착하기까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사무실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화면에는 인천 전 항로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저희를 믿고 배를 타세요.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 수단으로 배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은 승선 절차를 조금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주민인 거 뻔히 알면서도 배표와 신분증을 거듭 확인하니 불편해요. 일인당 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도 15킬로그램으로 한정돼 있어요. 다 우리 먹고 입고 쓰고 할 생필품인데…." 김영희(36) 씨는 어제 두 딸과 함께 도심에 왔다 덕적도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도 볼일이 있으면 언제든 하루 만에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가족처럼 오가는 마음과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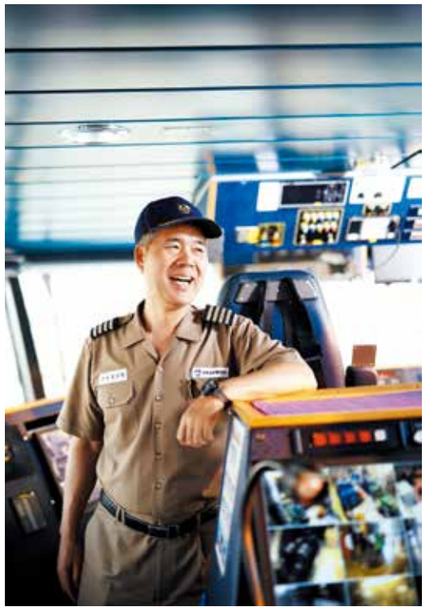
"딸내미, 딸내미." 매표소에서 일하는 배민자(32) 씨를 섬 주민들은 이렇게 부른다. 한참 피어나던 스무 살 시절부터 보았으니 그녀를 딸이나 동생으로 여길 만하다. "사실 저는 워낙 많은 분들을 뵈어서 못 알아볼 때도 있는데, 먼저 아는체해 주세요. 그럴 땐, 참 감사하고 보람돼요."

오랜 세월 함께한 여객터미널 사람들과 섬 주민, 여객들은 한식구나 다름없다. 워낙 편하게 여기다 보니 배를 타거나 섬 안에서 불편했던 일이 있어도 여객터미널에 털어놓는다.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다 들어 드려요. 하소연할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언짢은 마음 풀고, 다시 인천 섬을 찾을 수 있도록 기꺼이 들어드려요."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이주엽(47) 연안터미널 팀장은 사람들이 섬에서 즐겁게 머물다 기분 좋게 터미널을 나설 때 가장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한다.

개찰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근(58) 씨는 승객 중에서 교통약자들이 가장 마음에 쓰인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특히 위험해요. 터미널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길에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네 일 내 일 할 것 없이 휠체어에 태워서 배까지 안내해 드려요. 노약자나 임신부는 줄 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개찰해 드리고요."

30여 년, 늘 첫 마음으로 바다를 달려온 김성칠 선장 ▶



▲ 섬 주민과 가족 같은 배민자 씨
◀ 승객들이 편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도록 돕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사람들

수많은 사연이 머무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노장, 늘 처음처럼 키를 잡다

하늘빛이 불그름해질 무렵, 땅 끝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바람 끝에 진한 짠내가 묻어난다. 뱃고동 소리가 바다 건너 귓가에 울려 퍼지며 오늘 마지막 배의 입항을 알린다. 오늘 아침 백령도로 떠났던 코리아킹호가 아홉 시간여 만에 연안부두에 닻을 내렸다.

"아, 힘들다. 빨리 쉬고 싶어. 내 이야기 뭐 할 거 있다고…. 난 그저 안전하게 운항하는 걸로 만족해." 김성칠(57) 선장은 30여 년 전에 처음 키를 잡은 이래 지금껏 바다와 동고동락해 왔다. 백령 항로를 오간 세월만 20여 년이다. 같은 항로를 매일 같이 오가는 것이 답답하고 외롭지 않으냐 물으니, 그가 긴장하느라 그럴 틈이 있겠냐며 되받아 묻는다. 인천 앞바다는 어장이 발달해 있고 오가는 배들이 많아,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인천에서 백령도까지는 뱃길로 네 시간이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 왕복이면 부산까지도 가는 거리지. 어장이 있으면 피하고 배가 보이면 또 피하고…. 매 순간 집중해야 해." 노장은 긴 세월 비바람과 안개를 헤치며 신중하고 노련하게 바다를 가로질러 왔다. "사람들이 배를 믿고 타는 건 당연한 거야. 선장이 그 배를 안전하게 운항해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고 하지만, 머리 희끗한 이 바다 사나이는 검게 그을린 두터운 손으로 30여 년 잡아온 키를 쉽게 놓지 못할 것이다.

육지와 섬을 잇는 정거장,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 안에선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바다 건너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과 육지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서 와 다른 곳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 안에는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터미널의 하루가 끝나간다. 불빛이 꺼지고 북적이던 대합실은 텅 비었지만, 숱한 사연이 남긴 온기는 아직 남아 흐른다.

168개 섬에서 우리 '애인愛仁'해요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만의 가치다. 시는 인천 바다와 섬이 품은 가치를 발굴해 '매력 있는 애인 섬'을 만든다.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섬 인프라를 확충해 섬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로써 바다도시 인천의 진정한 해양 주권을 바로 세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168개 인천 섬을 빛나는 보석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매력 있는 애인(愛仁) 섬 만들기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바다와 168개 섬은 인천만의 가치다. 모두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역사, 문화를 형성하고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보물섬이다. 인천시는 168개 인천 섬을 빛나는 보석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동을 건 이 프로젝트는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개선 ▶관광여건 개선 4개 분야 44개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섬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지속하는 사업으로 도서민이 참여하는 섬 특성화 사업에 역점을 둔다. 향후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역사로 미래를 쓰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인천시는 대한민국 최초가 시작된 개항장 일대를 해양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창조 모델도시로 재탄생시킨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6년간 국비를 포함해 약 6천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오래된 건축물의 정비에 집중한 반면, 개항창조도시사업은 개항장 일대 해양, 문화, 관광을 융합해 해양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인천 내항 재개발 및 친수 공간 조성, 마리나 항만 확충 등을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과 연계해 인천을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

위치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사업비 5천998억 원(규모 : 3.9㎢ - 중구 3.3㎢, 동구 0.6㎢)

해안 철조망 걷어내고, 희망을 두른다

현재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해안에는 총 63.6㎞의 철책이 둘러쳐져 있다. 시는 인천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철책을 걷어내고 바다의 품을 활짝 연다. 시는 해안 철책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군 당국과 협의해왔다. 먼저 아암물류단지와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등 열 곳의 철책 33.4㎞를 철거할 계획이다. 그리고 흉물스럽게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을 폐쇄회로(CC)TV, 열 영상 감시 장비 등 첨단 장비로 대체할 방침이다.

대상 인천 연안(강화·옹진군 제외) 212㎞ 중 63.6㎞ 철책
우선 대체 10개 소 33.4㎞(전체 철책의 52.5%)

서해 5도를 넘어, 대한민국 바다 지킨다

인천시가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시는 섬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서해 5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산업을 활성화한다. 서해 5도 어장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황폐해졌다. 이에 인천시는 서해 5도 특별법 제정과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 계획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확대하고,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판매를 추진하며, NLL 특정 해역 정부합동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젠 경기장에서 보고, 배우고, 즐긴다

2014년 9월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45개 국 9천 436명의 선수가 16일간 3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펼쳐졌다. 기간 중 17개의 세계신기록과 34개의 아시아신기록, 116개의 대회 신기록이 쏟아졌다. 화려했던 당시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아있다. 그러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다양한 체육활동과 영화, 쇼핑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바뀌어 외국인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글 **김윤경 본지편집위원**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즐거운 관광코스 아시아드주경기장 투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건, 아시아경기대회 때 사용한 메달이에요." 호기심 가득한 귀여운 얼굴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움직인다. "와~ 메달 딴 선수들이 여기에 올라가는 거 TV에서 본 적 있어요." 우르르 시상대에 올라간 아이들의 표정엔 즐거움이 가득하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었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재조명하고,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인천아시아드기념관. 이곳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기록물들을 통해 화려하고 성대했던 개·폐막식과 메달리스트들의 영광의 순간은 물론, 당시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다시 느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메달 주력종목인 양궁, 사격, 축구와 성화를 직접 점화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덕분에 아시아드기념관 관람을 포함한 '아시아드주경기장 투어 프로그램' 누적 참여인원이 지난 8월 말 기준 7천 300명에 이른다. 주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은 시설 탐방과 천연 잔디구장 축구, 육상 트랙 달리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인기종목뿐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전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볼과 라켓을 볼 수 있는 볼 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아시아드투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아시아경기대회와 스포츠 종목에 대한 해설을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초·중·고·유치원생과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주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 전화(☎454-2025)로 예약하면 된다.

환상적인 훈련장 선수들을 위한 맞춤 환경

"이젠 굳이 전지훈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내트랙이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죠." 서부교육청 육상 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서곶중학교 윤미미 교사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이 한없이 고맙다. 예전에는 훈련을 위해 매일 문학경기장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아시아드주경기장 덕분에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더구나 실내트랙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훈련이 가능하다.

주경기장에는 서부교육청 육상대표 선수들이 이용하는 육상트랙 외에도 우리나라 유일의 크리켓경기장이 있어 지난해 3월부터 크리켓 남녀국가대표팀이 상주하고 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을 목표로 훈련 중이다. "예전에는 송도 LNG보조구장에서 연습했어요. 흙바닥이라 늘 부상 위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용구장이 있으니 감사하죠." 여자 국가대표 크리켓 송승민 주장은 크리켓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인천크리켓협회가 아시아드 크리켓경기장을 국가대표 훈련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경기장 사후 활용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외신의 조명도 받았다. 인천크리켓협회는 경기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곳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훈련이 없는 주말에 코리아컵 아마추어 크리켓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14개 성인 크리켓팀 중 12개 팀이 리그에 참가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체육 시민들의 사랑 듬뿍

"하나 둘, 하나 둘~" 석양이 하늘 가득 붉은 기운을 드리울 즈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다. 자유롭게 몸을 풀더니, 이내 경기장의 트랙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매일 저녁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는 걷기운동이 진행된다.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돼 걷기교실은 물론, 자전거교실, 축구클리닉, 에어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 축구 클리닉은 프로축구 선수 출신 지도자의 코칭으로 진행돼 뒤늦게 축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경기장 주변 광장은 서구청 향토문화보존회 정기발표회, 벼룩시장, 영유아보육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장소로 활용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축구클리닉(주 1회 월 4회, 원하는 요일 선택해 신청)
매주 화, 목 / 보조경기장 19:30 ~ 21:00 / 6만 원 / 454-2024 / 정원 30명

초등부축구클리닉(주 1회 월 4회, 원하는 요일 선택해 신청)
매주 화, 수, 토 / 보조경기장 17:00 ~ 19:00 / 5만 원 / 454-2024 / 정원 20명

자전거교실(주 2회 월 8회)
초급 화, 목 / 아시아드주경기장북측광장 / 10:00 ~ 11:30 / 2만8천 원 / 454-2024 / 정원 20명
중급 수, 금 / 아시아드주경기장북측광장 / 10:00 ~ 11:30 / 2만8천 원 / 454-2024 / 정원 20명

해피워킹_건강걷기교실
일반시민 대상 / 매주 화, 목 / 보조경기장 / 19:00 ~ 20:00 / 무료 / 45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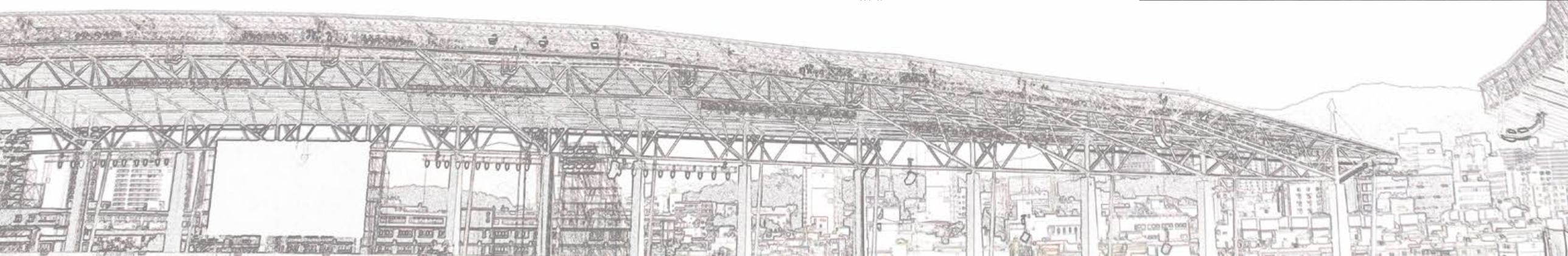
건강백세운동교실_에어로빅
일반시민 대상 / 매주 월~금 / 남측광장 / 19:00 ~ 20:00 / 무료 / 454-2024

서구여자어린이축구교실_(주 2회 월 8회)
초등학생 대상 / 매주 수, 금 / 보조경기장 / 15:00 ~ 17:00 / 3만 원 / 4569-0062 / 정원 20명

원스톱 데이트 코스_대규모 관광단지로 변신

앞으론 운동 외에도 영화관람과 쇼핑을 위해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1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관한다. 이어 내년엔 웨딩홀을 겸한 다목적 컨벤션홀, 대형 뷔페식당, 피트니스센터, 가구전문 쇼핑몰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익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앞으로는 연간 45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 영화관과 식당, 쇼핑몰 등이 모두 들어서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아우러져 원스톱 관광코스로 손색이 없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가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주경기장의 상업시설과 연계된다면 시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9월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용역'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구 주경기장 일원 63만1천975㎡를 관광단지로 지정, 주경기장을 기준으로 공촌천변으로는 8만3천800㎡ 규모의 유원시설을, 심곡천변 크리켓경기장 쪽으론 8만1천㎡의 워터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5천㎡의 숙박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이 아시아드경기장 적자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이 품은 풍성한 영화의 역사

모든 대중매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하나의 전시를 대중 앞에 선보이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얻는가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벽을 만나기도 한다. 시립박물관의 하반기 기획특별전 '인천, 어느 날 영화가 되다 (9월 6일~11월 20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글 **배성수 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사진 **시립박물관**

고민의 출발, 인천과 영화

박물관에서 영화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꽤 오래된 것이었다. 인천에서 촬영된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이나 배우 등 스태프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 정도의 계획이었다. 어느 날 TV에서 방영되던 '팔도사나이'라는 한국 고전영화를 보던 중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선린동 청관거리며, 자유공원에서 바라보는 인천항, 지금은 없어져 버린 오례당 주택 등은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1960년대의 살아있는 인천 모습이었다. 도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때문인지 많은 영화감독들이 인천을 로케이션 장소로 선택해 왔다. 영화 속 인천의 모습을 전시로 풀어보면 어떨까? 전시를 기획하게 된 출발이었다.

인천, 어느 날 영화가 되다

9월 6일 ~ 11월 20일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 날 휴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영화 '사랑'의 배우들 촬영 현장(1957년)

송현동 이화창고에 마련된 세트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장면

영화 '사랑' 시나리오와 포스터

인천 영화 '사랑'을 만나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은 과연 '무엇을 인천 영화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였다. 단순히 인천의 모습이 등장했다고, 인천 출신의 배우가 출연했다고 해서 인천 영화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던 중 영화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을 바탕으로 1957년 신광영화사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이강천이 감독을 맡고, 배우 김진규 씨와 주증녀 씨가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다. 송현동 이화창고에 마련된 세트장에서 대부분의 장면을 촬영했고, 주인공 안빈의 병원 장면은 율목동 부인병원에서 찍었다. 신광영화사의 대표인 공병두 씨와 영화제작에 투자했던 김옥돈 씨를 비롯해 스태프 다수를 인천 출신으로 꾸렸다고 한다. 인천의 자본이 투입되고 인천 사람들이 스태프로 참여한, 그리고 영화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촬영한 영화 '사랑'이야말로 인천 영화가 아닐까? 아쉽게도 필름이 남아있지 않는 영화이기에 그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보를 검색하던 중 고서적을 취급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발견했다. 표지에 당시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던 '정회갑' 선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나리오였다. 한국영상자료원에도 없는 자료였기에 망설일 것이 없었다. 며칠 후 받아 본 영화 '사랑'의 시나리오는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빛을 발하고 있다.

미림극장 옥상에서 잠자고 있던 보물 '광고 필름'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 보기'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극장 주변에는 언제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 그런 탓에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 꼭 봐야만 했던 것이 극장 주변 상점들의 광고였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배다리 금은방 '형제사', 난쟁이 아저씨가 눈길을 끌었던 인현동 뒷골목의 호프집 '마음과 마음'의 광고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전시의 마지막 꼭지를 '극장과 극장문화'로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광고 필름을 구하러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낡은 아날로그 필름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던 중 미림극장의 영사기사 조점용(72)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와 관련된 필름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노구의 선생을 따라 오른 미림극장 옥상의 창고에서 여덟 봉투에 담긴 광고 필름을 발견했다. 이제 문제는 이 필름이 온전히 재생되느냐였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부산의 업체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 필름을 보는 순간 '심봤다'를 외쳤다. 1970년대 제작된 레스토랑, 양복점 등의 광고 필름이었던 것이다. 고맙게도 필름은 40년의 세월을 온전히 견뎌주었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난 이들에게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미림극장 옥상에서 발견된 광고 필름들

발견된 광고 필름 중 '유림음악다실'과 '레스토랑' 재생스틸컷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사가 서울에 몰려있을 때, 지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천의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대형 자본이 투입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그 시절의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도 이제 인천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영화가 되어온 것은 아닐까?

인천 영화 역사 다큐로 제작된다

윤기형 감독, '경동 시네마 거리' 등 인천의 영화 이야기 재조명

동인천 일대를 주름잡았던 옛 극장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윤기형 감독. 그는 '최초의 극장'과 '경동 시네마 거리' 등 인천의 영화 이야기는 재조명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동인천 일대를 누비기 시작한 그는 '보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애관(愛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인천의 '시네마 거리'는 최초의 극장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극장인 애관극장이 중심이다. 애관극장은 1895년 부산출신 부호 정치국이라는 사람이 세운 협률사가 그 시초다. 축항사라는 이름을 거쳐 1900년대 초 애관극장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애관극장, 미림극장, 오성극장, 키네마극장, 동방극장, 인영극장, 동인천극장, 시민관, 문화극장, 인천극장 등 수많은 극장들이 동인천에 있었다.

윤 감독이 다큐를 찍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인천이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최초로 생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건물이나 행사가 없다는 것이다. 사라진 극장 터에는 빌딩이나 사우나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 버렸고, 그나마 공터로 남아있는 곳은 동방극장 자리였던 주차장뿐이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이나 전주, 제천, 경기도 부천 등 타 지역처럼 인천을 상징하는 영화제가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죠."

인천의 영화 역사 이야기를 담은 윤기형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관(愛觀)'은 내년쯤 공개될 예정이다.

1951년 애관극장

10 October

06 목 **스테이지149 음악극2 '봉장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7일은 오전 10시 30분, 8일은 오전 11시, 오후 3시)
전석 2만 원
☎ 1588-2341

07 금 **뮤지컬 '덕혜옹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오후 7시(8일 오후 3시, 7시)
7일 전석 무료(교직원 관람), 8일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760-3457

08 토 **세움 'Korean Breath'**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R석 2만 원, S석 1만 원
☎ 500-2000

조화현의 똑똑! 톡톡!
'북&토크 콘서트-이철경'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4시
티켓 2만 원, 예매 1만 5천 원
☎ 834-1055

09 일 **2016 노사연&신유 콘서트 '理想한 만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VIP석 11만 원, R석 9만9천 원, S석 7만7천 원, A석 6만6천 원
☎ 1588-0766

13 목 **인천시립교향악단 I 사랑 태교음악회**
'폴링 인 러브 시즌-클래식을 처음 맛보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1588-2341

14 금 **'소문'**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8시(15~16일 오후 4시)
전석 2만 원
☎ 500-2000

15 토 **제27회 이건음악회**
밀로쉬 카라다글리치 초청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760-0898

플라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학생 무료, 일반 6천 원
☎ 760-3457

동화 무용극 '장화 신은 고양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전석 2만 원
☎ 580-1163

16 일 **인천의 노래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초대
☎ 440-4013

18 화 **제1회 부평구립풍물단 정기연주회**
'풍년의 가을소리'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500-2000

19 수 **커피콘서트10**
'클래식기타리스트 박규희 여섯 줄에 담은 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 원
☎ 1588-2341

20 목 **인천시립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인천의 레전드,
세계의 거장 윤학원을 다시 만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 원
☎1588-2341

21 금 **i씬+콘하현 음악소풍**
'재즈피아니스트 레미 파노시앙의 어텀리브즈'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8시
티켓 2만 원, 예매 1만 5천 원
☎ 834-1055

22 토 **연극 '사랑별곡'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23일 오후 2시)
R석 6만6천 원, S석 5만5천 원
☎ 1566-6551

조윤성, 성민제 듀오 콘서트
'Unplugged'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500-2000

23 일 **2016년 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1만 원
☎ 010-9116-2265

25 화 **2016 제34회 제물포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872-7873

26 수 **2016 스테이지 온 스크린-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 420-2731

모닝 콘서트 '김효영 생황 듀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 5천 원
☎ 580-1166

인음챔버오케스트라의 세계로 떠나는 춤 여행
'Dancing Queen'
학산생활문화센터 학산소극장
오후 7시
전석 무료
☎ 866-3993, 3970

27 목 **브런치 콘서트**
'클래식에 빠지다, 쇼팽'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전석 1만5천 원
☎ 500-2000

28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7회 정기연주회**
'폴링 인 러브 시즌-클래식과 춤추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천 원
☎ 1588-2341

29 토 **소프라노 황수미&앙상블 마테우스 내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제32회 I-DANCE
'인천을 빛낸 별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 원
☎ 1588-2341

30 일 **호박 HoBAC데이트-극장 책을 읽다**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전석 1만 원
☎ 500-2000

제13회 미추홀천사들과 함께하는 요들숲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초대
☎ 765-0220

즉흥연극 '나의 이야기 극장'
학산생활문화센터 학산소극장
오후 4시
전석 무료
☎ 866-3993, 3970

31 월 **i씬+콘하현 음악소풍 '10월의 마지막 밤을'**
복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
오후 8시
☎ 834-1055

| 이달의 展 |

제52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9월 30일~10월 6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소·미추홀 전시실

'동행' 4인전
10월 5~16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 갤러리

김가빈 개인전
10월 5~15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연수서연회 회원전
10월 5~15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2016 인천세계미술제
10월 7~1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회 '시우' (마침 맞게 오는 빗) 정기전
10월 7~1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전시실

추억여행전(3인전) MEMORY
9월 7일~10월 1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7회 아라회 작품전 '마음에 색을 칠하다'
10월 7~1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귀큰 여우 창작소 대형 프로젝트 작가와의 만남
10월 14~2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 10회 청명전
10월 14~2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제19회 인천미협수요사생회전
10월 14~2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그림자전
10월 14~20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2016년 녹색성장을 인천인과 함께 하는 미술전
10월 21~27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우연옥, 퀼트를 좋아하는 여인들
10월 19~29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황은자, 펜화로 만나는 우리민화
10월 19~29일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중국 위해시 인천예총 교류전
10월 21~27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소전시실

제10회 빛과 향기 회원전
10월 21~27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77회 인천광역시사진작가협회 회원전
10월 28일~11월 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4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10월 28일~11월 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소전시실

제29회인천사진연합전
10월 28일~11월 3일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愛仁 제1회 300만 인천 애인페스티벌

빠져들다, 애인愛仁과 사랑에

'300만 인천 시민, 우리 애인(愛仁) 해요~'
인천시가 '300만 인천 시대'를 맞아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축제를 연다.
인천(仁)을 사랑(愛)하고, 인천이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의 '애인(愛仁) 페스티벌'.
10월, 인천엔 사랑이 만연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영상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자. 축제는 아직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막을 올린 '제1회 애인 페스티벌'이 이달 16일까지 인천 전역에서 열린다. 애인 페스티벌은 선물 꾸러미처럼,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전후해 시 전역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를 하나로 모았다. 이 축제는 '300만 인천시대'를 앞두고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테마도 인천(仁)을 사랑(愛)하고, 인천이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의 '애인(愛仁)페스티벌'이다.

축제에는 인천에 대한 사랑을 담은 54개 행사가 줄을 섰다. 개항장 컬처나잇, 한류관광콘서트, 인천시민화합한마당 등 메인 행사가 11개다. 기존 시·군·구에서 열던 각종 축제를 엮은 연계 행사 31개, 공연, 전시회, 토론회 등 지원 행사가 12개다.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진 축제는 인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애인 페스티벌의 프롤로그는 지난달 24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한류 관광 콘서트가 썼다. EXID, AOA, 여자친구, I.O.I, 몬스타엑스, 인피니트 등 K팝 스타 14팀이 참여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을 힘차게 울렸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짚어보는 '개항장 컬처 나잇'은 이달 1일과 2일 중구 개항장 일대에서 열린다. 온 세상을 빛으로 물들일 인천불빛축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열린다. 그리고 시민의 날인 10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시민 대화합한마당'을 끝으로 감동적인 축제는 막을 내린다.

놓치면 후회하는, 주요 행사

남동소래포구축제
일시 9월 30일~10월 2일
장소 소래포구·해오름공원

부평풍물대축제
일시 9월 30일~10월 2일
장소 부평시장 인근

인천송도불빛축제
일시 9월 30일~10월 30일
장소 송도센트럴파크

문학산상 음악회
일시 10월 1일
장소 문학산 정상

인천국제펫케어페스티벌
일시 10월 1~3일
장소 송도컨벤시아

개항장 컬처나잇
일시 10월 1~15일
장소 중구 개항장 일대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
일시 10월 6~9일
장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폐막식)
일시 10월 15일
장소 문학경기장

언제 9월 24일(토)~10월 16일(일) 23일간
어디서 인천시 전 지역
어떻게 한류관광콘서트, 시민대화합한마당 등 총 54개 행사
※ 자세한 행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제1회 애인 페스티벌 배너광고 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2-120

개성開城에서 송도松島 까지 110년의 역사

졸업앨범에는 학교만 있지 않다. '인천'도 있다. 졸업기념 사진촬영 때 학교 주변 동네의 풍광이 종종 카메라에 잡혔다. 교외(校外)에서 잡은 포즈나 학교 밖의 행사를 담은 사진은 더없이 귀한 인천의 과거이다. 지역 내 고교 앨범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통해 인천의 6, 70년대를 반추해 본다. 그 열 번째로 송도고등학교의 앨범을 들춰 보았다.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재촬영 **홍승훈 자유사진가**

"올해 10월 3일이 우리학교 개교 110주년입니다" 오성삼 교장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연이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이번 10월호에 송도고를 게재하기로 계획하고 옥련동에 자리 잡은 학교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을 전해들었다. 제대로 '날'을 맞힌 것이다. 송도고의 낡은 학교 앨범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하게 다가 왔다.

송도고의 토대가 된 학교는 '한영서원'이다. 대한의 '한(韓)'과 영재의 '영(英)'을 합한 이름이다. 1906년 10월 3일 개성 송악산 기슭 산지현 마루턱에 터를 잡았다. 설립자 윤치호 선생은 단군이 이 땅의 하늘을 연 '그 날'을 의도적으로 잡아 학교 문을 열었다. 초가로 된 뜸집에 '한영서원(韓英書院)'이란 커다란 현판을 달았다. 개성 명물인 인삼을 재배하던 장옥을 교실로 사용했다.

개원한 지 3년째 되던 해인 1908년 9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석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당시 보기 힘든 보일러 시설과 스팀시설을 갖춘 교사로, 학생들이 겨울에도 훈훈한 교실에서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목축, 과수재배 등의 실습장까지 갖춰 공부하면서 실습장에서 실습을 통해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게 했다. 이른바 '반공생(半工生)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윤치호 선생은 일제에 투옥되었다. 부득이 외국인 선교사를 교장으로 모셔야 했다. 이런 와중에 1917년 조선총독부는 한영서원의 교명을 송도고등보통학교로 변경하게 했다. 광복 후 남북이 분단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가 속한 개성은 남한지역이었다.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6·25 전쟁으로 개성은 공산치하의 붉은 땅이 되었다. 한때 개성이 수복됨에 따라 1950년 10월 9일에 다시 개교했지만 개성지구 후퇴로 인하여 학생과 교사가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1950년 12월 13일 학교를 남겨 둔 채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내려와 재개교를 어디서 하느냐는 문제로 고심을 하였다. 인천, 영등포, 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경기지구와 강화도에 흩어져 있는 개성과 연백의 피난 학생들을 고려하여 인천에서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1952년 4월 5일, 자유공원 밑에 있는 교육구청사(현 인천시 남부교육청)에 임시교사를 마련했다. 송학동 가교사에 남녀 피란학생 500 여 명이 모였다. 교실은 너무 비좁았다. 그때 일본 사찰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답동의 적산사찰 '서본원사'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피란민이 살고 있었다. 군 첩보대 H.I.D가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와 절간을 합쳐 새 학교 터를 그곳에 마련했다. 1953년 11월 9일 드디어 송학동의 교육구청사 내의 가교사를 교육청에 반환하고 답동으로 이전했다.

1983년 송도고는 중학교와 완전히 분리한 후 옥련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송도'로 불리던 지역이다. 이로 인해 혹자는 "송도고가 송도로 제대로 갔다"고 얘기한다. 북한 개성부터 이어 온 송도고의 유구한 역사를 안다면 이런 혼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송도고의 '송도(松都)'는 옥련동의 '송도(松島)'와 다르다. 교정을 돌아보다 운동장 한쪽에 세워진 흉상과 마주했다. 송도고 출신의 윤영하 소령 상(像)이다. 교장실 벽면에 '연평해전'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다.

각 학교 게재 월호

1월호 인천여상	6월호 인천대건고
2월호 동산고	7월호 인천해양과학고
3월호 인성여고	8월호 재능고
4월호 인천기계공고	9월호 박문여고
5월호 중앙여상	

시립도서관 한옥 정문(64년도 앨범)
인천시립도서관은 1922년 지금의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자리(옛 세창양행 사택)에서 개관했다. 1941년 신흥동에 있던 옛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수리해 이전한 데 이어 1946년 일본인 정미업자의 별장 자리였던 율목동으로 옮겼다. 사진은 '인천시립도서관'의 현판이 달린 한옥 정문의 모습이다. 시립도서관은 2009년 남동구 구월동에 터를 마련해 '미추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운동장 옆 도원극장(64년도 앨범)
송도고는 신흥동 시절 학교 운동장이 협소해 숭의공설운동장을 빌려 교내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언덕 위 전도관과 도원극장이 눈에 들어온다. 도원극장은 1957년에서 59년 사이에 개관한, 변두리 3류 극장이었다. 1966년 12월 13일 영사실 천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 극장 건물이 불타기도 했다. 1979년 극장 폐관 후 한동안 카바레, 나이트의 도원회관으로 운영되었다.

맥아더처럼 '상륙'(65년도 앨범)
맥아더 동상은 1957년 9월 15일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세워졌다. 당초 이 제막식에는 맥아더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미국 정치 분위기상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대한민국 최고위급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동상 옆에 상륙 장면의 부조상도 함께 건립되었다. 인천 상륙이 아니라 필리핀 상륙 사진을 참고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동상과 부조상 바로 앞까지 접근이 가능했다. 관람객들이 맥아더의 손등을 만져 그곳만 반질반질했다.

미군 클럽 앞에서 찰칵(66년도 앨범)
6·25 전쟁 후 중구 하버파크호텔 앞쪽 해안을 끼고 미군부대가 줄지어 있었다. 길 건너 중앙동 주변에는 미군 관련 가게와 그들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았다. 창고를 개조해서 클럽과 술집을 만들었다. 카네기홀, 유니버살, 인터내셔널클럽, 헬리비타운, 위스키메리, 다리야, 키클럽, 에이후레임, 아리곤부룸, 세븐구락부, 시멘스클럽, 럭키클럽…. 인천에 있던 클럽들이다. 학생들이 중앙동 키클럽과 위스키 메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 클럽은 현재도 영업 중이다.

싸우며 건설하자(69년도 앨범)
1968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무장공비 규탄대회의 모습이다. 그해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서울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1·21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공비(共匪)'는 무장한 공산 게릴라들을 뜻하는 말로 1980년 대까지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다. 스탠드 상단에 붙은 '싸우며 건설하자' 현판은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나라 위한 결핵 예방(69년도 앨범)
결핵은 후진국병이다. 6, 70년대 결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경제와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질병 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 1위이다. 답동 육교에 결핵 예방 현판이 걸려 있다. '나를 위한'이 아니라 '나라 위한' 결핵 예방이란 표어에 눈길이 간다.

유희형

'농구' 하면 송도, '송도' 하면 농구다. 유희형, 김동광, 이충희, 강동희, 정덕화, 김승현… 한 시대를 풍미한 우리나라 농구계의 '지존'들이다. 농구부 창단의 계기는 1931년 당시 졸업반이던 김정배가 서울 황성기독청년회(현 YMCA)에서 농구를 정식으로 배워오면서 였다고 한다. 그에 앞서 1928년도부터 이미 교내 농구대회가 열릴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반화된 스포츠였다. 1952년 인천에 재개교한 후 좁은 운동장 때문에 농구는 교기로 적극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체육관이 없던 초기에는 야외코트에서 운동을 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농구대 백보드에 전등을 매달아 놓고 훈련을 했다. 그 결과 송도 농구부는 전국 최강으로 우뚝 섰다.

이충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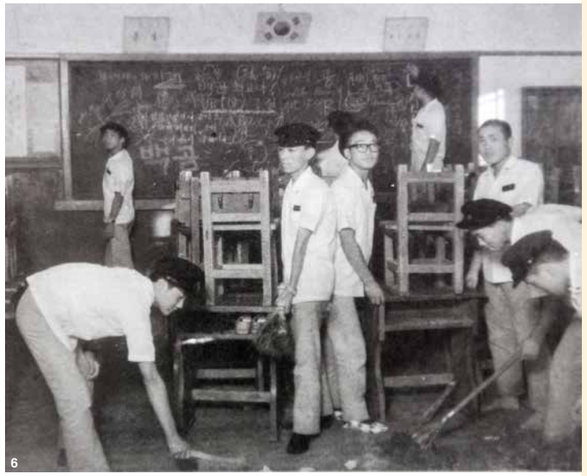
1

2

3

4

5


6

1 콜레라 예방 '출장 주사'. 불결한 환경과 방역 시스템이 미비했던 1960년대 우리나라에는 콜레라가 세 번 창궐했다. 63년 316명, 64년 2명, 69년 137명이 콜레라에 걸려 사망했다. 콜레라가 돌기 시작하면 방역 당국은 바로 주사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 행인들의 팔뚝에 주사기를 꽂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맞았다. 주사를 먼저 맞은 자와 기다리는 자의 표정은 하늘과 땅 차이다.(70년도)

2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팠던 때다. 성장이 왕성한 고교시절엔 도시락만으로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점심시간은 물론 휴식시간엔 매점으로 달려간다. "친구야, 여기 콜라!" "우와, 콜라" 모두 그것에 시선을 빼앗긴다. 파는 자, 사는 자가 모두 학생인 자율매점이다.(75년도)

3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교내 등록금 수납 창구.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공납금(등록금)을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납부했다. 이 때문에 간혹 교실에서 등록금 도난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71년도)

4 송도고는 농구부를 비롯해 유도부, 송구부(핸드볼), 육상부, 정구부 등 다양한 운동부가 운영되었다. 응원전을 펼칠 기회가 많아 학년별로 여러 명의 응원단장들이 있었다. 그때의 몸짓, 지금 아이들보다 멋지다.(66년도)

5 "하나라도 더!" '체력장'이란 이름의 체력 측정 모습. 학생이나 교사나 안경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체력은 몰라도 시력만큼은 지금보다 월등했다.(77년도)

6 학교생활에서 하기 싫은 것 중 하나는 교실 청소다. 요령이 생겨 쓰레기만 줍고 줄 맞추고 대강 끝내기도 한다. 하루의 끝은 교실 청소. 끝나고 분식집에 갈 마음에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70년도)

1937년(제 19회) 앨범 속 북한 풍경

송도고는 40년대와 50년대 졸업앨범이 없다. 전쟁 난리통, 그리고 그 이후의 불안정했던 시기에 미처 앨범을 챙기지 못했다. 그 와중에 '1937년 앨범' 한권을 극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개성 남대문 내 개성사진관'에서 제작한 것이다. 송도고는 물론 우리나라 고교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송도학원 80년사'에 의하면 송도고는 개성 시절,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세계 제일을 자처한 웅대한 캠퍼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송도고등보통학교를 둘러 본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인들은 와세다 대학보다 더 웅대한 캠퍼스에 질려버리곤 했을 정도였다. 이 캠퍼스는 현재 북한의 정치대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앨범에는 학생들이 소풍갔던 개성 선죽교, 예성강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

2

3

4

5

6

7

1 예성강 철교 앞에서
2 진남포
3 1911년도 재학생 일동
4 한영서원 당시 교사(校舍)와 학생
5 선죽교 소풍
6 일제 항공대 위문 방문
7 개성 교정에서의 운동회

NEWS BRIEF

INSIDE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
어르신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출범
송도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 규제 완화
2020 항공산업 육성 중기 추진 계획 수립

'두바이 5조원 투자' 검단스마트시티 조성 스타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5조 원을 투자하는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출범식이 10월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모하메드 알 거가위 UAE 내각 장관, 중동·아시아의 4개 국부 펀드 대표 등 큰손들이 대거 집결한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개발사업은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 두바이(SCD)'가 공동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470만㎡ 용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양측은 지난 10여 년간 사업 중단으로 방치돼 있던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코리아'를 건설하는 합의각서(MOA)를 올해 1월 체결하고, 자본금 500만 달러 규모의 SPC를 설립했다. 검단스마트시티에는 쇼핑센터·5성급호텔·금융센터 등 랜드마크 구역(21만㎡), 전시장·다용도 공연장 등 에듀테인먼트 구역(32만㎡), 학교시설 등 지식단지 구역(34만㎡), 병원·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미래기술 구역(47만㎡), 비즈니스호텔, 상업시설 등 상업 구역(34만㎡), 주거단지(116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토지 공동 소유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난 6월 22일 토지매매가격 협상에 착수, 최근 매매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시 투자유치담당관 ☎440-3298

주한 요르단 대사, 인천의 요르단인 격려 지난 10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에 거주하는 요르단 커뮤니티는 도화동에 위치한 아랍사원에서 주한 요르단 아델 무함마드 아다일레(59) 대사와 다과만찬을 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소래염전의 소금을 전달하며 인천과 요르단의 우정을 약속했다. 이에 아다일레 대사는 감사를 표하며 데이츠(대추야자)로 화답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요르단인들 중 90%가 인천에서 생활 중이다. 그들 대부분은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식당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아랍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피라스 알코파히 씨가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첫 '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 2019년 말 송도에 440병상 규모의 전문 의료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27일 국내 5개 병원과 말레이시아 의료투자사 GPSB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심장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관절 정형외과 등 4개 전문병원과 내과·검진센터·응급센터를 운영하게 될 1개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5천236㎡ 규모 부지에 2천500여 억 원을 투자해 내년 말 착공, 201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393

어르신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우리 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병의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어르신들 방문불편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접종초기 쏠림 현상이 심했다고 판단, 올해는 연령별로 기간을 구분해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일정은 만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에 대해 10월 4일부터 우선 접종하고, 만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은 10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440-2742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출범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이 지난 9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지원단은 취업설계사, 석사·박사 연구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부평구 갈산동 재단 별관 1층에 마련됐다. 지원단은 인천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인·구직 매칭, 직업훈련 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의 시 여성정책과 ☎440-2863

송도 연구단지에 공장 설립 가능…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는 지난 9월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 규제개혁추진단 ☎440-1633

2020 항공산업 육성 중기 추진계획 수립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 및 국가 산업단지 입지 등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016년~2020년 '항공산업육성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중기 추진계획은 항공 혁신도시 구축, 미래형 항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글로벌 항공부품기업 100개사 육성, 8만5천 명 신규 고용 등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계획에는 특히 항공정비분야(MRO)를 육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활성화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의 시 항공과 ☎440-4802

결핵관리 최우수… 질병관리본부 표창 우리 시가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6년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사항을 분석해 우수 시·도를 뽑아 표창하고 향후 결핵업무 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16년 결핵환자관리, 역학조사 실시 등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와 2015년 민간공공협의회의 활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의 시 보건정책과 ☎440-2743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우리 시는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 직원이 야간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최첨단 스마트폰을 활용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낮 시간에 영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문의 시 납세협력담당관 ☎440-5772

NEWS BRIEF

INSIDE

인천경제자유구역
반도체 산업 메카로 '우뚝'

시민상 9개 분야 수상자 10명 선정

공영주차장 250곳
실시간 정보 서비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반도체 산업 메카로 '우뚝'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미국 앰코테크놀로지, 싱가포르 스태츠칩팩, 중국 JCET스태츠칩팩 등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 3개사와 반도체 재료 관련 일본 TOK, 반도체 장비 관련 미국 에이원머신 등 총 5개의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이 송도에 입주했다. 이 기업들은 송도 국제도시 내 부지 총 45만7천108㎡에 4조175억 원을 투자했다. 미화 6억5천만 달러의 외자가 들어오고 총 1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2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특히, 중국의 JCET과 싱가포르의 스태츠칩팩이 합병한 JCET스태츠칩팩은 영종지구에 올해 2억 달러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했으며 2025년까지 2천153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영종도에 입주한 스태츠칩팩코리아 영향으로 인천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7% 증가했다. 올해 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입주하면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업들의 투자결정은 항공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적지인 데다, 7년 조세감면(법인세, 지방세 등)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의 경제자유구역청 ☎453-7374

노후주택 점검은 '하우징 닥터'에 맡기세요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 노후주택을 찾아 모든 분야를 무료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하우징 닥터'를 시행한다. 시는 10월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원도심 노후주택을 찾아 모든 분야를 무료로 점검,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하우징 닥터'를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균열, 변형, 노후도,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등 각종 설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단순한 부품 교체, 수리와 경미한 손상 부위의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무료로 해결해 줄 계획이다.
문의 주거환경정책과 ☎440-3487

시민상 9개 분야 수상자 10명 선정 우리 시는 제 38회 시민상 수상자로 3개 부문 9개 분야에 걸쳐 모두 10명을 선정했다.
올해 시민상 공모엔 새마을·봉사·환경 등 사회공익부문, 상공업·농수산 등 산업발전부문, 효행부문 등 3개 부문 9개 분야에서 모두 26명의 후보가 접수됐다. 시는 대학교수·언론인·사회단체 관계자·시의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공익부문 새마을 분야 윤상현(62·강화군) 씨 등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5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 52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된다.
문의 시 총무과 ☎440-2505

공영주차장 250곳 실시간 정보 서비스 우리 시가 2018년까지 인천지역 250개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구축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7년 지능형 교통(ITS)분야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내년도 국비 8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2단계)'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40곳에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지난 7월부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면수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하고 있다.
문의 시 교통정책과 440-3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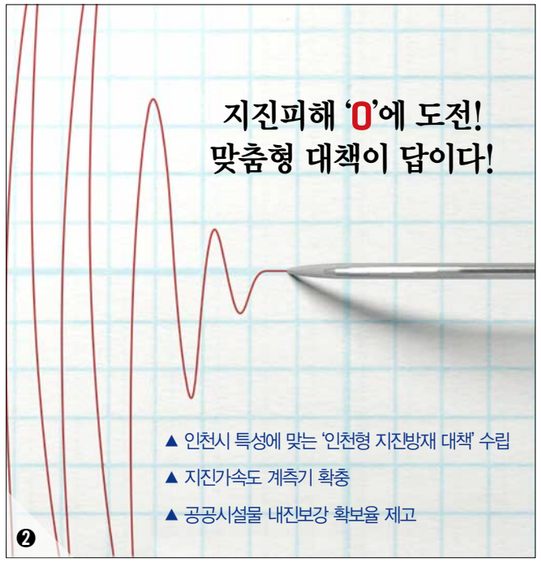
IMAG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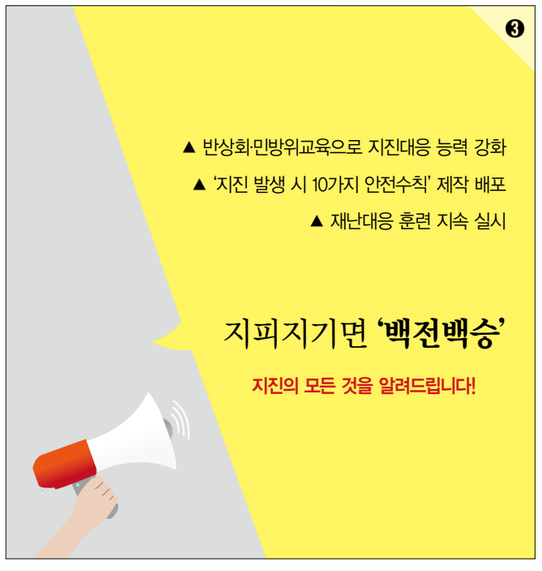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한반도도 이젠 지진 발생지대!

인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❶





COUNCIL
NEWS

INSIDE

지역현안 대안 모색 정책협의체 발족
세계 크라쉬협회 회장, 인천시의회 방문
151번째 의정아카데미 운영

지역현안 대안 모색 정책협의체 발족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9일 의회 중앙홀에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단체인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발족식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인천시 관련 국장, 시민단체, 학계 및 체육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족한 정책협의체는 저출산, 청년 실업,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문화·관광·체육, 물류·항만·공항, 원도심 활성화 등 모두 6개 분야로, 29명의 여야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황인성 부의장 주도로 출범한 정책협의체는 의회 활동으로 보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분야 전문가와 책임 시의원으로 구성했다.

세계 크라쉬협회 회장, 인천시의회 방문 세계크라쉬협회장이며 OCA 경기국장인 하이더 팔만(Hader Farman)과 한국크라쉬협회 김을중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지난 9월 1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했다.

크라쉬 종목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래된 스포츠로서,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경기종목이었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날 크라쉬협회 관계자는 인천시의회를 예방해 크라쉬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州)와의 교류협력과 OCA 본부 유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기구, 해외 유명 대학 및 국제학교, 공항 및 항만 등 주거환경과 지정학적 위치가 뛰어나, OCA 본부의 정주여건이 외국 어느 도시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 주 의회와의 상호교류 협력, 나아가 체육, 경제,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더 회장은 또, 9월 말에 결정되는 OCA 본부 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OCA 본부 유치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51번째 의정아카데미 운영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인천시의회를 찾아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 서구 청라2동 소재 청람중학교 1~2학년 학생회 임원 35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에서 '제151회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회 소개를 듣고 이수민 전문 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받았다. 이어 모의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의원 역할 연기를 통해 안건 상정과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찬반 토론 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배웠다.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의회 직접 체험은 떨리면서도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발언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시의원이 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개선안 토론회 개최 인천시의회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의원, 학부모, 관계 공무원 및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신설 및 재배치 정책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현황과 문제, 인천시 학생 수 중장기 전망과 과제, 학교 신설 및 재배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양호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학교설립 개요와 학교 설립 추진현황'을, 장동민 청운대 교수는 '도시계획과 학교시설의 연관성', 유혜영 송도학부모연합회장은 '학교신설 시급성', 이지학 봉화초 운영위원장은 '봉화초 폐교 이전 반대'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강좌 신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 의원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국어 강좌(영어, 중국어)를 의회본관 3층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향후 일주일에 두 번씩 3주간에 걸쳐 외국어 강좌에 참여할 예정이다.

강의에 참석한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어학교육으로는 다소 짧은 과정이지만 일상적인 회화를 넘어 그 나라 문화와 외교에 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고, 특히 비즈니스 에티켓과 매너 표현법 중심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안 협의 위해 국토부·코레일 방문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이 지역 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과 공항철도 환승 할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잇달아 만났다.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한 제갈원영 의장은 먼저 강호인 장관에게 제3연륙교의 조기 건설을 위해 민자 자금 재조달이나 재구조화 과정에서 협약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만 사장과의 만남에서는 2007년 공항철도 개통 이후 영종역과 운서역이 독립요금제 구간으로 묶여 영종 주민들이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고 1천 원 안팎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부당함을 지적, 차별 없는 교통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등은 "인천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저널' 구독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역사, 관광, 지역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440-6135~8
홈페이지 www.icouncil.go.kr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3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

강화군은 새우젓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3회 강화도 새우젓 축제'를 개최합니다.

기간 10월 7일(금)~9일(일)
장소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정포항) 일원
주최 강화도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032-932-9337)
후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인북부수협
주요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새우젓 가요제, 새우 시식회, 각종 체험행사, 지역 농축특산품 판매부스 운영, 국화 전시회 등
문의 강화군청 ☎930-3413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학대 의심 증거, 정황, 상처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학대 후유증
· 신체학대 : 신체적 상처, 신경계 손상, 장애, 사망 /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 문제 등을 야기 /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 긴장, 공격성, 수면장애, 자살충동 등
· 정서학대 : 정신건강·행동발달·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 /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도,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
· 성학대 : 신체적 상해,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우울, 불안, 반사회적 행동 및 품행장애, 불안정한 애착 등
· 방임, 유기 : 수동적,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 성장과 인지발달의 손상 / 사회적인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의 어려움 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학대 의심 증거, 정황, 상처 등 의심내용이 발견되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특징, 관계 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제1회 재난안전 전시회

우리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송도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제1회 재난안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재난안전 과거·현재·미래, 인천 & 나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55개의 재난안전 패널을 전시하고 심폐소생술 및 구명조끼 사용법과 재난안전 동영상, 재난안전 관련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기간 11월 30일까지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송도 컴팩스마트시티 2층 기획전시실, 3층 영상관, 세미나실
전시내용 재난안전 패널 전시 / 재난안전 동영상 상영 / 재난안전 무료 영화 상영 /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재난안전 장비, 유물, 시설 전시 / 안전진단 장비 및 점검보고서 전시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관람료 무료
문의 ☎850-6000, 600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설계 현상 공모

우리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맞춰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및 설계를 현상 공모합니다.

공모주제
·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새로운 명칭
· 도로상부 활용방안 및 주변지역 연계아이디어 또는 설계구상
공모기간
· 아이디어 공모 : 9월 30일까지
· 설계공모 : 10월 31일까지
당선작 발표(일정 변경 가능)
· 아이디어 : 10월 7일
· 설계공모 : 11월 11일
공모방법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적용 홈페이지(giexpressway.idi.re.kr) 활용
참가자격
· 아이디어 공모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설계공모 : 전국소재 대학원(생) 또는 관련 전문업체
문의 시 도시계획과 ☎440-4649

2016 하반기 재능인·드림·희망 장학생 선발

인천인재육성재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318명
접수방 인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www.janghakin.or.kr) 장학생 선발 공고문 안내 참조
문의 인천인재육성재단 ☎831-9409

제1회 인천 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10월14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제1회 인천 역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10월 14일(금) 오후 2시~4시 40분
장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체육관 (송도동 문화로 119)
참여인원 고등학생 1,000명 (대회참가자 300명, 응원단 700명)
행사내용 인천의 상징, 역사, 문화 및 인물 등에 대해 퀴즈를 통한 장학 대상자 선발
문의 (재)인천인재육성재단 ☎831-9409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간 10월 22일(토)~23일(일)
장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일원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경제정보산업테크노파크, (사)한국드론협회
행사구성
· 경기분야 : 마스터스 FPV 레이싱, 드론 조종대회(학생/일반부)
· 전시분야 : 드론 전시존, 드론 교육존, 드론 체험존, 드론 시연존 등
· 경쟁분야 : 드론 S/W 경진대회(초등/중등부)
· 학술분야 : 한·중·일 드론 워크숍
· 체험 및 이벤트 행사 : 드론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어린이, 가족 대상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
입장료 무료
문의 www.kdci.or.kr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남구 1인미디어 공모전

남구에서는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를 만들고 '미디어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1회 인천광역시 남구 「1인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자격 초등학생 누구나
접수기간 9월 26일(월)~10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
콘셉트 세상 속 순간 순간 내가 전하는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제출방법 남구 인터넷방송국(namgu.incheon.kr) 접속 → 제출서류 작성 및 응모작 업로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동영상(10분 이내)
문의 남구청 ☎880-7913

인천 개항장 밤마실(Culture Night)

야간 문화 탐방 프로그램인 인천 개항장 밤마실(Culture Night)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의 문화재와 민간 문화시설을 야간에 관람하고 공연, 전시, 체험, 미디어파사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간 10월 1일(토)~15일(토)
- 밤마실(Culture Night) : 10월 1일(토)~2일(일)
- 문화재 야간개방 및 미디어파사드 : 10월 7일(금)~8일(토) / 10월 14일(금)~15일(토)

장소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사업내용
- 개항장 일대 근대 문화재 및 주변 문화시설 야간 개방(박물관, 미술관 등)
- 인천 개항장 일대를 빛으로 밝히는 불빛축제
- 문화재 도보탐방, 근대체험행사, 공연, 미디어파사드 등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중구청 / 인천관광공사
참고 www.culturenight.co.kr

OBS 시청안내

OBS는 가정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방법
- 지상파(직접수신) : ch8-1
- 케이블 : ch2
- OBS홈페이지(www.obs.co.kr)

문의 ☎670-5000

추천! 인천의 책
BOOK

노래는 저 혼자 울고 있고

최무영 저
소명출판
2016.08.05

2016년 8월 최무영 시인 11주기를 맞아 출간된 유고시집. 시인은 1947년 인천에서 태어나 잡지사, 신문사 등에서 글품을 팔았다. 그의 시에는 서민이 품고 있는 애잔한 슬픔의 정서가 녹아 있다. 작고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연작시에서 작품이 더러 빠지기도 했다. 작품은 연대순으로 배열했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원작 표기를 그대로 살렸다. 표지는 시인이 기획 제작한 동인지 <내항> 1집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연기

정승열 저
리토피아
2016.05.28

정승열의 시집. 시인은 1947년 인천에서 출생, 1979년 시문학으로 등단했다. <단풍>, <단풍 2집>을 내고, 인천시 문화상과 인천예총 예술인상을 받았다. 시인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한다. 그의 무수히 많은 시편들은 꽃을 비롯한 자연적 이미지에 기대어 있다. 그러나 자연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여자 여름

김진초 저
미소
2016.07.07

2016년 제6회 한국소설 작가상을 받은 김진초 소설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 분출을 시도하는 저 안의 이야기다. 첫 번째 장편소설 <시선>, 두 번째 장편소설 <교외선>에서도 알 수 있듯 김 소설가에게서는 주변의 사소한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느껴진다. <여자여름>에서는 느닷없이 사라지는 막막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소시오패스의 수면법

이상은 저
현대시학
2016.08.16

2012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한 이상은 시인의 시집. 이상은의 시에는 유독 질병의 출현이 잦다. 그녀의 시에는 몽유병, 관음증, 공황장애, 건망증 등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자주 등장한다. 시인에게 질병은 결핍과 좌절, 상실과 부재를 강조하는 은유로서 기능한다. 또 무엇보다 인물의 광기나 감정을 빌려서 발화하는 시적 방식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엔 어떠한 생물들이 살까?

글 **고현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홍보서포터

인천시청 후문을 지나다 보니 생소한 나무가 눈에 띈다. 잎이 넓적하고 손바닥같이 생긴 것이 플라타너스인가? 무척이나 궁금했다. 집에 가서 자료를 찾으니 '목백합'이었다. 인천광역시 시목이라 그 나름대로 이 지역에선 유명한 듯하다. 백합과는 다르게 생겼지만 목백합이라 불리고 튤립나무라는 또 다른 이름도 가진 이 나무. 재밌다.

난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 동물에 대해 늘 궁금했다. 이름은 무엇인지, 언제 피는지, 어디서 자라는지. 더구나 올해 여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홍보 서포터로 활동하게 되면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더 알고 싶었다. 인천에만 사는 생물들이 있을지, 인천에 터를 잡은 생물들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다 특별한 몇 종을 발견했다.

우선 저어새. 천연기념물 205호이자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지구촌에 3천여 마리만 존재하는 희귀종이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전체 저어새의 90%는 고향이 인천이라고 한다. 봄이면 영종도, 강화도, 남동유수지 부근으로 날아와 산란하는 덕분에 세계적인 조류학자들도 이들을 만나러 인천을 찾는다고 한다.

두 번째는 물범이다. 연안부두에서 뱃길 따라 네 시간을 달리면 닿는 백령도에는 물범바위라는 곳이 있다. 그 주변에서 물범 2백여 마리가 여름을 나기 때문이다. 짧은 앞다리가 매력적인 물범은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청도에서 발견되어 '대청부채'란 이름이 붙은 식물, 지난 4월 소청도에서 처음 발견된 회색머리노랑딱새, 갈색지빠귀 등 인천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삼 느낀 것은, 우리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생물들을 어쩌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영종도 습지는 매립을 앞두고 있어 저어새가 돌아오기 어렵고, 상어나 범고래 사이에서도 살아남았던 물범은 서식지의 훼손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줄어 이미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처지다.

앞으로도 인천에서 다양한 생물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그들의 삶에 관심 갖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어떠한 생물들이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프랭클린 애덤-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합니다. 경험해보세요. 두려움에 자신에게 잠재된 재능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안주 말리기

고양이 손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묘안은 빨랫줄입니다.

살랑살랑 꾸들꾸들.

바람과 햇빛이 할아버지의 안주를 숙성시킵니다.

이제 고양이는 밥상 밑에서

얌전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을, 모든 게 자알~ 익어갑니다.

-동구 화수동 화수부두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